

# 미국, 선박 20척 등 고강도 대북제재

### 기관 13곳...중기업 4곳 포함

### 미국 내 자산 전면 동결

### 제3국까지 겨냥 최대 압박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중국인과 중국기업, 북한 선박 등에 대한 무더기 대북 제재를 단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또다시 독자적 대북 제재에 나선 것이다.

미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적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으로의 불법적 자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날 개인 1명과 기관 13곳, 선박 20척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중국인 쑤쓰둥 단둥 동위안 실업 대표와 이 회사를 포함한 중국 무역 회사 4곳이 포함됐다.

북한 쪽에서는 해사감독국과 육해운성 등 정부 기관과 륜라도선박, 륜라도 풍악 무역 등 무역회사 및 선박·운송회사, 노동 인력 송출회사(남남 협조회사) 등 9곳이 명단에 올랐다. 선박이 제재대상에 포함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제재대상들은 대북 제재 행정명령 13810호 및 13722호의 적용을 받아 미국 내 자산 및 자산 이익이 전면 동결된다. 미국인들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여기서 창출된 수익이 결국 북한 정권과 노동당으로 흘러들어가 핵과 미사일 개발 등 정권유지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게 미 재무부의 판단이다.

미 재무부는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불법적 돈을 봉쇄하기 위해 다자간 또는 독자적 조치를 계속 취해왔다"며 "이번 제재는 북한의 수익창출에 도움이 되는 교통·운송 네트워크뿐 아니라 북한과 오랫동안 거래해온 제3국인까지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북한이 국제적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북한을 외부와의 무역 및 수익원으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한 경제 압박을 최대화하겠다는 우리의 결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재대상에는 누계 기준으로 북한과 수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해온 기업들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9년 만에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지 하루 만에 강도 높은 제재의 칼을 뽑아낸 것은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 작전에 따라 대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림으로써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이 최근 유엔의 대북 제재 등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개인과 기업을 포함함으로써 북한의 자금줄을 원천 봉쇄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려는 뜻도 깔려 있어 보인다.

다만 금융기관은 대상에 빠지는 등 '세컨더리' 성격의 제재는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대북 제재는 지난 9월 26일 북한은 핵 10곳과 북한인 26명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가한 지 약 두 달 만에 추가로 이뤄진 것이다.

이로써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쳐 46개 기관과 개인 49명, 선박 20척을 대북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연합뉴스

**미국의 기관·개인·선박 추가제재 명단**

- 기관 (13곳)**
  - 륜라도선박(부흥1호, 륜라도호, 양기도호 소유)
  - 륜라도풍악무역(풍라 1·2호) · 유성선박(원산2호, 지력2호, 7-28호, 유성12호, 유성 7호) · 대북선박(리관호)
  - 금별무역(강성1호, 구룡호호, 소백산호, 려성강1호)
  - 남남협조회사 · 해사감독국 · 육해운성 · 려명해운경영 (북한 기업 9곳)
  - 단둥동위안실업 · 단둥기화무역 · 단둥상허무역
  - 단둥송다무역 (중국 기업 4곳)
- 개인 (1명)**
  - 쑤쓰둥(41) 단둥동위안실업 최고 경영자
- 선박 (20척)**
  - 7-28호 · 강경호 · 강성1호 · 구룡호호 · 금성3호 · 금성5호
  - 금성7호 · 금성산3호 · 부흥1호 · 리관호 · 륜라1호
  - 륜라2호 · 륜라도호 · 려성강1호 · 소백산호 · 원산2호
  - 양기도호 · 유성12호 · 유성7호 · 지력2호
- 제재 이유**
  - 김정은 정권의 은밀 가운데 해안인 '해상무역' 봉쇄 주역
  - 제재 선박들은 지난 9월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새 대북 제재 행정명령에서 북한 항구를 다녀온 선박은 물론 북한에 기항했던 선박과 물건을 바꿔 실은 선박까지 포함
  - 북한이 국제 무역의 대부분을 배운 물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재가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

### 무가베 37년 독재 마침표

### 짐바브웨 前부통령에 권력이양

37년간 짐바브웨를 통치해 온 로버트 무가베(93)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전격적으로 사임했다.

제이컵 무넨다 짐바브웨 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5시50분께 현지 국영 TV를 중계된 연설을 통해 무가베 대통령이 사임했으며 그의 사임서를 제출받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세계 최고령 지도자인 무가베 대통령의 사임은 즉각적으로 발표된다.

또 이날 개시된 무가베 대통령의 탄핵절차도 곧바로 중단됐다.

수도 하라레에서는 시민 수천명이 모여 환호를 지르고 춤을 추며 그의 퇴진을 축하했다.

무가베 대통령의 사임으로 이달 초 전격 해임된 에머슨 음나가그와 전 부통령이 당분간 짐바브웨의 새 지도자로서 권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당 '짐바브웨 아프리카 민족동맹 애국전선'(ZANU-PF) 관계자는 "올날 가그와가 48시간 이내 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권력을 이양받을 것"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무가베 대통령의 사임 발표는 ZANU-PF이 야당과 함께 이날 오후 의회를 열어 탄핵 안건을 발의한 다음 나왔다.



무가베 자진 하야... 시민들 환호 21일(현지시간) 37년간 짐바브웨를 통치해 온 로버트 무가베(93) 대통령의 사임 소식이 전해진 직후 시민들이 수도 하라레의 의사당 국제 컨퍼런스 센터 벽에 걸린 대통령의 초상화를 때며 그의 퇴진을 기뻐하고 있다. 짐바브웨 의회는 이날 무가베 대통령의 사임서를 제출받았으며, 이에 따라 이날 개시된 그의 탄핵 절차도 중단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美 입국거부 한국인 85명 귀국

### 체류주소 잘못 적어 출국조치...보안강화 시범사례인듯

우리 국민 85명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미 조지아 주 애틀랜타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다 무더기로 입국을 거부당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교통안전청(TSA)이 미국에 들어오는 항공편 입국자에 대한 보안규정을 강화한 이후 다수의 한국인 여행자가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은 ESTA(전자여행허가제)로 애틀랜타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던 우리 국민 85명이 입국을 거부당해 한국으로 출국 조치됐다고 20일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이들 85명은 대한항공(KE305편)과 미 델타항공(DL26편) 등 2개 항공편을 이용해 미국에 도착했다.

전체 여행객 85명 중 36명은 대한항공을, 나머지 49명은 델타항공을 이용했다.

모두 ESTA를 통해 입국하려 했으나 관광 및 사업상의 방문 시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ESTA의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려 한 것으로 미 당국에 의해 조사됐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현지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단체 여행객이 미국 내 체류 주소를 기입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TSA가 보안을 대폭 강화했는데 일종의 시범 사례로 적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미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들 입국자의 미국 내 체류 주소가 실제와 다르거나 실재하지 않는 가공의 주소인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소식통은 "여행객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며, 종교 행사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CBP 측은 한국인들의 입국거부 사유에 대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미 현지 여행업계에서는 TSA의 보안규정 강화 이후 입국자가 미국 내 체류 주소를 잘못 기입할 경우 입국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을 이용한 승객 36명은 19일 오전 9시 10분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에 내렸다가 약 27시간이 경과한 20일 오전 11시 50분 항공편을 타고 한국으로 돌아갔다.

델타항공 승객은 직항이 없어 디트로이트 등을 경유하는 항공편을 타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공항 내에 있는 CBP 측 보호 공간에서 대기했으며 귀국편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과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통보 접수 즉시, 해당 국민의 미국 방문을 기획한 단체 관계자를 접촉, 우리 국민의 미국 방문 및 입국거부 경위 파악을 시도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 美 전문가들, 북핵 실험장 초목까지 관찰

온라인에 공개된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가 북한 핵·미사일 기술 발전을 추적하는 유용한 도구로 쓰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기술 발전으로 연구자들이 북한의 핵 비밀을 알아낼 수 있게 됐다며 전문가들이 공개출처정보를 활용해 북핵을 분석하는 모습을 소개했다.

최근 일본 아사히신문 등 외국 언론 및 분석기관에서 북한이 고체연료 미사일 실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고체연료 엔진은 액체연료 엔진보다 연료 주입시간이 짧아 발사 준비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주목을 끄는 사안인데, 북한은 이를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어 사실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이에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센터는 분석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이 연구소의 데이브 슈펠러 연구원과 제프리 루이스 연구원 팀은 매일 지구 사진을 찍는 업체 '플래닛 랩스'가 제공한 근적외선 이미지를 활용했다.

이들은 10월 중순 며칠간 촬영된 기존 엔진 실험장 사진을 샅샅이 뒤졌다. 근적외선 이미지로 촬영지의 초목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구분해 같은 방향으로 상당한 열과 힘이 가해진 흔적을 찾아냈다.

이를 토대로 연구소는 북한이 고체연료 엔진 실험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10월에도 이들은 근적외선 위성 사진을 분석해 북한이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부품을 시험했는지 가능성을 있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과거 정보기관 영역이었던 종류의 일을 민간 전문가들이 할 수 있게 됐으며, 세계에서 가장 철벽같은 나라인 북한도 속속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고 WP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Aroma Life**  
www.aroma-life.co.kr

KCPBA 2016  
2011  
아로마라이프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속옷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를 받은 유니크한 디자인과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옥각형)사용 및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효과)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건강을 생각한 속옷입니다.

<p><b>아모리이온</b></p> <p>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p>	<p><b>아모리이온 롱바디</b></p> <p>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p>	<p><b>아실리 바디슈트</b></p> <p>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p>	<p><b>비비드 아모르</b></p> <p>러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p>
--	--	--	--

대표전화 1588-2219